

한-GCC FTA 추진 및 수산물 교역 현황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는 걸프만 연안 6개
산유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된
지역협력기구로, 최근 우리나라와의 FTA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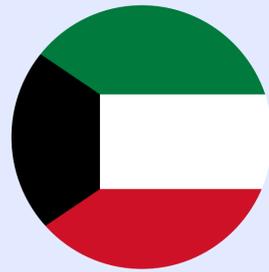
GCC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한- GCC FTA 추진에 따라 2008년 첫 공식협상이 개시되었으나, 2010년 중단되었다가 2022년 협상이 재개되며 총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2월 28일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2008.01	협상 출범 공식 의결
2008.07.09~10	제1차 공식협상 개시(서울)
2009.03.09~10	제2차 공식협상(리야드)
2009.07.08.~10	제3차 공식협상(서울)
2009.11.17.~19	원산지/서비스 회기간 회의
2010.01	GCC측의 협상중단 선언
2022.01.19	FTA 협상 공식 재개 선언
2022.03.28~31	제4차 공식협상(서울)
2022.06.06~09	제5차 공식협상(리야드)
2022.10.24~28	제6차 공식협상(서울)
2023.02.14.~16	제7차 공식협상(리야드)
2023.10.23.~27	제8차 공식협상(서울)
2023.12.28	한-GCC FTA 협상 타결

출처: FTA 강국, KOREA

● ● ●

우리나라와 GCC의 수산물 교역 규모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2천 5백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액이 4백만 달러, 수입액이 2천 1백만 달러로
매년 약 1천 7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누적 기준 수산물 수출액은 5백만 달러, 수입액은 2천 3백만 달러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

김	49.4%
킹크랩 및 대게	18.2%
기타어류	14.6%
넙치	4.4%
⋮	

주요 수입 품목

갈치	40.1%
기타게	37.0%
어분	11.1%
새우	7.4%
갑오징어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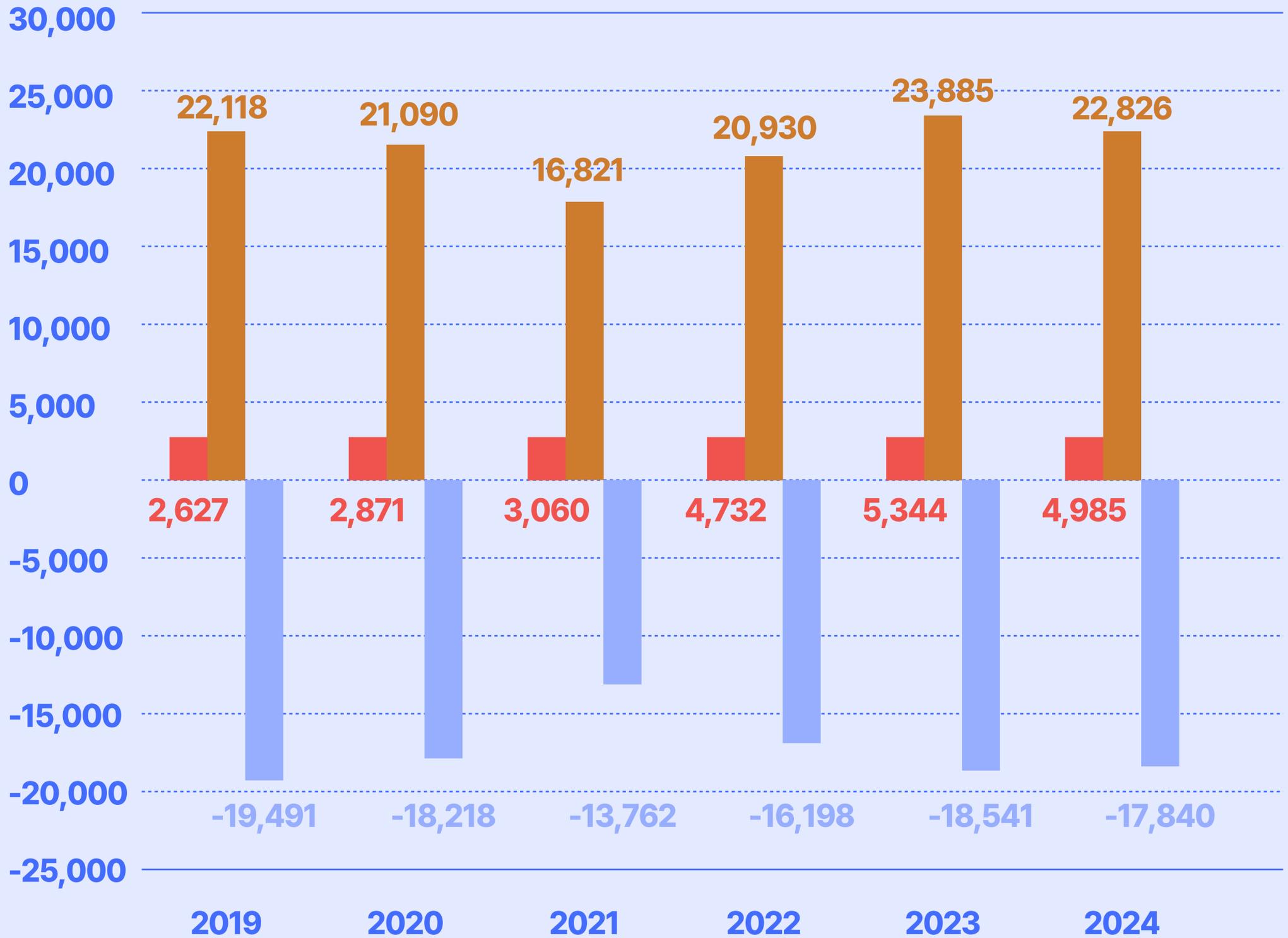


〈한-GCC 수산물 교역 현황〉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출처: 소금 제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단위: 천 달러)





최대 수출상대국

GCC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4년 10월 누적 기준 최대 수출상대국은 UAE이고,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

對UAE 수출액 중 조제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최대 수출 품목도 김이었습니다.

최대 수입상대국

반면 최대 수입상대국은 오만이며, 다음으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수입 품목

오만산 수산물 수입은 대부분 냉동 갈치와 어분이 차지하고 있으며, 바레인산은 전량 냉동 기타계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새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별 누적 수출액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국가	2024년 10월 누적 수출액	2024년 10월 누적 수출액 비중	2024년 10월 누적 수입액	2024년 10월 누적 수입액 비중
UAE	3,034	60.9%	635	2.8%
사우디아라비아	1,192	23.9%	1,686	7.4%
카타르	408	8.2%	0	0.0%
쿠웨이트	207	4.1%	5	0.02%
바레인	89	1.8%	8,446	37.0%
오만	56	1.1%	12,054	52.8%

출처: 소금 제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GCC는 주요 중동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한-GCC FTA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GCC 회원국들 중 수산물 최대 수출 상대국인 UAE와는
개별 협상도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물의 중동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점 수출 품목인 김에 대해서는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오만산 갈치를 비롯하여
바레인산 기타게, 사우디아라비아산 새우 등에 대해서는
국내산 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입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